

문화재와 이름 붙이기

최봉영 · 한국항공대학교

1. 들어가며

중국에서 한자와 한문을 빌려 쓰기 시작한 뒤로, 한국의 학자들은 바깥에서 가져온 개념이나 이론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많았다. 이로써 학자들은 한국말을 바탕으로 개념을 다듬고 이론을 만드는 일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이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나 이론을 가져다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학문을 하였다. 이렇게 되니 한국인이 나날이 살아가는 삶과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삶이 따로 노는 일이 많아졌다.

학자들이 바깥에서 빌려 온 외국말에 빠져서 한국말을 가볍게 여기자, 일반 사람들 또한 한국말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인은 한국말을 갈고 다듬는 일까지 게을리하게 되었고, 따라서 점점 한국말의 바탕에 어둡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 한국인은 어쭈과 사랑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본디 어떤 뜻에서 비롯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인은 남에게 빌려 온 善과 愛, good과 love로써 어쭈과 사랑을 풀어내는 처지에 있다. 이러니 아무리 어쭈과 사랑을 좋아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이루는 일이 매우 어려워진다.

한국인이 더욱 보람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겨레가 한국말로써 오랫동안 갈고닦아 온 슬기와 재주를 잘 살려 쓸 수 있어야 한다. 즉 한국인은 나, 너, 우리, 남, 어둠, 모둠, 사랑, 미움과 같은 것의 뜻을 잘 알고 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말들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으며, 삶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지 제대로 풀어내어야 한다. 그래야 삶을 더욱 알차게 만들 수 있는 슬기와 재주를 지닐 수 있고, 다른 겨레에게도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다. 그런데 학자들이 한국말을 가볍게 여기고 돌보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글은 겨레와 말에 터하여 한국인에게 한국말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먼저 한국인이 한국말을 바탕으로 생각의 힘을 기르고 쓰는 것을 살펴보고, 이어서 한국말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끝으로 한국말을 가꾸고 보살피는 한 방법으로서 문화화에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의 뜻을 잘 살려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2. 겨레와 문화

겨레는 오랫동안 함께 문화를 가꾸고 써 온 무리를 말한다. 이때 겨레는 문화를 함께 가꾸고 써 온 살림살이의 임자를 말하고, 문화는 임자가 함께 가꾸고 써 온 살림살이의 알맹이를 말한다.

겨레가 함께 문화를 가꾸고 쓰는 바탕은 말에 있다. 겨레는 말을 바탕으로 삼아 갖가지 생각을 펼침으로써 함께 문화를 가꾸고 쓰는 데 필요한 갖가지 슬기와 재주를 기른다. 이런 까닭에 겨레가 더욱 보람차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문화를 가꾸고 쓰는 바탕인 말을 잘 갈고닦아야 한다.

겨레가 갈고닦는 말에는 두 가지, 즉 입말과 글말이 있다. 이 가운데 글

말은 사람들이 입말로써 하기 어려운 것을 쉽게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까닭에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글말이 차지하는 구실이 더욱 커진다. 이런 까닭에 글말을 갖지 못한 겨레가 남의 글을 빌려 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일찍이 한국인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한자와 한문을 빌려서 쓴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겨레가 남의 글을 빌려 쓰게 되면 입말과 글말이 따로 놀아서, 글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옮기기 어렵다. 예컨대 조선시대 선비들이 평생토록 한문을 배우고 익혔지만, 대부분은 답답한 신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한문을 매우 잘한다고 일컫는 이들조차 경전을 읽거나 편지를 읽을 때, 모르는 글자나 문장이 튀어나와서 찢찢매는 일이 많았다. 이러니 남의 글을 빌려서 문화를 크게 발전시키는 일은 저절로 어려워진다.

세종대왕은 한국인이 중국의 한문을 빌려서 쓰는 일이 매우 어렵고 궁색한 일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글로써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훈민정음이 나온 뒤로, 한국인은 한국말을 바탕으로 슬기와 재주를 크게 기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람들은 바깥에서 가져온 개념, 이론, 기술 등을 매우 쉽고 빠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게 되었다. 퇴계와 율곡 이후로 선비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발(理發)과 기발(氣發)을 놓고 숭한 논쟁을 벌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한글로써 한문의 뜻을 넓고 깊게 풀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¹⁾

19세기말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되자, 정부는 오랫동안 써오던 한문을 버리고 국문을 공용문으로 삼았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문으로써 유식함을 자랑하던 사람일지라도, 한국인이 한국말로써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를 만나기 전에는, 저마다 이익을

1) 최봉영, '퇴계학의 바탕으로서 한글말',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편)〈우리말로 학문하기의 용틀임〉(채륜, 2010)참고.

지키는 일에 빠져서, 한자와 한문을 진서(眞書)라고 우기면서 국문을 언문(諺文)이라고 업신여겼다.

1896년에 나온 "독립신문"에서 보듯이, 한국인은 한글만으로도 문자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까닭에 20세기로 접어들어 한국인이 한국말로써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일이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지, 한국말을 바탕으로 슬기와 재주를 기르고 쓰는 일을 매우 잘하게 되었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한국인은 애국 계몽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서구의 근대문화를 매우 빠르게 배우고 익혔다.

그런데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김으로써, 한국인이 한국말로 말하고 쓰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한국말을 바탕으로 슬기와 재주를 기르고 쓰는 일 또한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한국인은 일본말을 국어로, 한국말을 조선어로 가르치고 배워야 했다. 1940년대로 접어들자, 일제는 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우거나 쓰지 못하게 하면서, 오로지 일본말만 강요하였다.

1945년 해방과 함께, 한국인이 한국말을 자유롭게 말하고 쓸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말의 힘을 살려서 슬기와 재주를 크게 기르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같은 한국인일지라도 한국말의 힘을 어떻게 살려서 쓰느냐에 따라, 슬기와 재주를 기르고 쓰는 일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한국인 가운데 일상의 한국말을 바탕으로 손발을 놀려서 슬기와 재주를 기르고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뛰어난 이들이 많다. 이들은 일상의 한국말로써 생각의 힘을 키우고, 손발을 놀려서 물건이나 사람의 쓸데와 쓸모를 찾아 가꾸고, 다듬고, 짓고, 만들고, 고치고, 사고파는 일을 함으로써 슬기와 재주를 매우 잘 기르고 쓴다. 이런 까닭에 물건을 가꾸고 다듬고 짓고 만들고 고치고 사고파는 일을 하는 사람과 예술의 재주를 갈고 닦아서 남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매우 짧은 시간에 앞선 나라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참 앞서 나아가고 있다. 이들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임자들이다.

다음으로 한국인 가운데 바깥에서 가져온 개념이나 이론을 거친 외국 말에 담아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로써 구실을 삼는 사람의 경우에는 뛰어난 이들이 매우 적다. 예컨대 이들은 存在, being, sein, 教育, teaching, education, 美, beauty, aesthetics와 같은 것을 무기로 삼아 스스로 유식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겁주고 꾸짖고 나무라고 억누르고 주눅 들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들은 가르침이 무엇인지 풀어내지 못하면서 教育과 education을 말하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풀어내지 못하면서 美, beauty, aesthetics를 말하는 까닭에 가르침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이 있는 슬기와 재주를 기르고 쓰기 어렵다. 이들은 20세기 내내 바깥에서 가져온 개념과 이론만 주워섬기다가 아이, 어른, 사랑, 가르침, 배움, 아름다움, 다스림과 같은 낱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풀어보지 못한 채, 마냥 100년을 흘려보내고 말았다. 한국인 가운데 매우 많은 이들이 인문학을 전공이나 생업으로 삼았지만, 별다른 업적을 내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3. 말과 생각

겨레는 말을 바탕으로 생각의 힘을 키움으로써 함께 문화를 가꾸고 쓰는데 필요한 갖가지 슬기와 재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겨레가 문화를 가꾸고 쓰는 일에서 가장 으뜸은 말을 바탕으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 생각의 힘을 크게 키우면, 문화 또한 크게 키울 수 있다.

겨레가 말로써 생각하는 것은 겨레가 쓰는 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은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런 까닭에 겨레가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문화를 가꾸고 쓰는 일 또한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과 중국인과 미국인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다. 예컨대 한국인은 함께하는 사람을 ‘나’와 ‘우리’로 나누고, 집을 말할 때 주로 ‘우리 집’으로 말한다. 그런데 중국인은 함께하는 사람을 ‘아(我: 나에 해당함)’와 ‘아문(我們: 나의 복수인 나들에 해당함)’으로 나누고, 집을 말할 때 주로 ‘아가(我家: 나의 집)’로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인은 우리로써 집을 대표하는 것으로 삼지만, 중국인은 나로써 집을 대표하는 것으로 삼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은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나’와 ‘그’를 함께 임자로 삼아서 ‘나는 그와 결혼한다’, ‘나와 그는 결혼한다’, ‘나하고 그하고 결혼한다’라고 말하지만, 미국인은 오로지 나만을 임자로 삼아서 ‘I marry him(나는 그를 결혼한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인은 ‘결혼한다’를 나와 그가 함께 하는 일로써 풀이하지만, 미국인은 내가 그에게 하는 행위로써 풀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이 한국말로써 생각을 하게 되면, 중국어나 미국인과 다르게 생각을 펼치는 일이 많다. 이런 것들은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들어주는 것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것을 깊이 있게 묻거나 따져보지 않았다.

한국인이 한국말로써 생각하게 될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은 낱말의 씨말에 토를 붙여 마디말을 만들어 문장에서 뜻을 지니도록 한다. 예컨대 한국인은 학교라는 씨말에 ‘가’, ‘를’, ‘만’, ‘에’, ‘에서’, ‘까지’, ‘부터’와 같은 토를 붙여서 ‘학교가’, ‘학교를’, ‘학교만’, ‘학교에’, ‘학교에서’, ‘학교까지’, ‘학교부터’와 같은 마디말을 만들어 문장에서 뜻을 지니도록 한다. 이 때문에 문장에 쓰인 마디말이 저마다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마디말로써 문장을 엮어내는 일이 한층 너그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인은 마디말의 차례를 바꾸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간다 학교에’, ‘학교에 나는 간다’, ‘학교에 간다 나는’,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나는’과 같이 말해도 서로

뜻을 주고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인이 낱말의 씨말에 토를 붙여서 마디말을 만드는 방식이 매우 가지런하다. 예컨대 한국인은 이름씨인 ‘사람’에 ‘이’, ‘임’, ‘됨’, ‘으로’, ‘으로서’, ‘에서’, ‘부터’, ‘까지’, ‘처럼’, ‘만큼’, ‘보다’ 등과 같은 토를 붙여서 ‘사람이, 사람임, 사람됨, 사람으로, 사람으로서, 사람에서, 사람부터, 사람까지, 사람처럼, 사람만큼, 사람보다’와 같은 이름말을 만들고, 풀이씨인 ‘가’에 ‘다’, ‘니’, ‘모’, ‘니’, ‘고’, ‘서’, ‘므로’, ‘니까’, ‘나’ 등과 같은 토를 붙여서 ‘가다, 간, 감, 가니, 가고, 가서, 가므로, 가니까, 가나’ 등과 같은 풀이말을 만든다. 이때 한국인이 씨와 토를 엮어서 마디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몇 개의 단순한 원리를 좇아서 매우 가지런하게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말로써 생각을 하게 되면, 씨에 토를 붙여서 마디말을 만들고, 그것들을 문장으로 엮어서 생각의 그물을 짜는 일이 아주 가지런하게 이루어진다.

셋째, 한국인이 말로써 어떤 것의 꼴, 일, 빛, 결, 내, 맛, 소리 등을 드러내는 방식이 매우 촘촘하다. 예컨대 한국인은 어떤 것의 상태를 말할 때, 꼴의 차이를 ‘둥그랗다’와 ‘둥그렇다’, ‘둥그스럼하다’와 ‘둥그스름하다’ 같은 말로써 나누어 드러내고, 일의 차이를 ‘팔딱거리다’와 ‘펼떡거리다’, ‘팔딱팔딱거리다’와 ‘펼떡펼떡거리다’ 같은 말로써 나누어 드러내고, 빛의 차이를 ‘파랗다’와 ‘퍼렇다’, ‘새파랗다’와 ‘시퍼렇다’, ‘파르스럼하다’와 ‘푸르스름하다’ 같은 말로써 나누어 드러내고, 결의 차이를 ‘보들보들’과 ‘부들부들’과 같은 말로써 나누어 드러내고, 내의 차이를 ‘고소하다’와 ‘구수하다’, ‘고습하다’와 ‘구습하다’ 같은 말로써 나누어 드러내고, 맛의 차이를 ‘달큰하다’와 ‘덜큰하다’, ‘달콤하다’와 ‘달 짝하다’ 같은 말로써 나누어 드러내고, 소리의 차이를 ‘찰랑찰랑’과 ‘철렁철렁’, ‘출랑출랑’과 ‘출렁출렁’ 같은 말로써 나누어 드러낸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말로써 생각하게 되면 사물의 꼴, 일, 빛, 결, 내, 맛, 소리 등에 대한 앎과 느낌을 드러내는 일이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진다.

넷째, 한국인은 대상에 대한 판단을 있음과 ‘~임’과 ‘~함’으로 명확히 갈라서 말한다. 예컨대 한국인은 ‘있다’와 ‘이다’와 ‘하다’를 명확히 나누어서 ‘그가 있다’, ‘그는 선생이다’, ‘그는 착하다’로 말한다. 이때 ‘있다’는 ‘없다’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어떤 것이 있고 없음을 가름하는 말이다. ‘이것은 있다’, ‘이것이 없다’에서 ‘있다’와 ‘없다’는 어떤 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준다. 있는 것은 일어나 있는 것을 말하고 없는 것은 사라져 없어진 것을 말한다. 있고 없음은 일어남과 사라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라져 없다가 다시 일어나 있을 수도 있고, 일어나 있다가 다시 사라져 없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이다’는 ‘아니다’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어떤 것이 ‘~인지’, ‘~이 아닌지’를 가름하는 말이다. ‘이것은 책이다’, ‘이것은 책이 아니다’에서 ‘이다’와 ‘아니다’는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서 말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준다. 한국인은 ‘이다’와 ‘아니다’로써 어떤 것과 그것에 대한 이름이 서로 하나를 이루는지 아닌지를 갈라서 말한다. 끝으로 ‘하다’는 ‘아니하다’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어떤 것이 ‘~한지’, ‘~아니한지’를 가름하는 말이다. ‘이것은 깨끗하다’와 ‘이것은 깨끗하지 않다(아니하다)’에서 ‘하다’와 ‘아니하다’는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준다. 한국인은 ‘하다’와 ‘아니하다’로써 어떤 것의 성질, 상태, 모습 따위를 ‘~인 것’과 ‘~이 아닌 것’으로 갈라서 말한다.

그런데 영국말은 한국말과 달리 ‘있다’와 ‘이다’와 ‘하다’를 모두 Be 동사를 써서 말한다. 예컨대 영국인은 ‘There is a book’, ‘This is a book’, ‘This book is big’처럼 모두 Be 동사로써 말한다. 이런 까닭에 한국말을 쓰는 사람은 ‘있다’와 ‘이다’와 ‘하다’를 명확히 나누어 말하는 반면에, 영국말을 쓰는 사람은 Be 동사 하나로써 ‘있다’와 ‘이다’와 ‘하다’를 두루 말한다. 이러니 한국인은 자연히 사물의 유무, 이름, 성질을 알고 느끼는 생각의 그물을 짤 때, 영국인에 비해서 한층 촘촘하게 짜게 된다.

다섯째, 한국인은 임자를 풀어낼 때, 동작으로써뿐만 아니라 상태로써

풀어낸다. 예컨대 ‘그는 사과를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먹었다’라는 풀이말은 동작으로써 임자인 ‘그’를 풀어낸다. 따라서 ‘먹었다’는 그가 사과라는 대상에게 한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매를 맞았다’라는 문장에서 ‘맞았다’는 상태로써 임자인 ‘그’를 풀어낸다. 이때 ‘맞았다’는 임자인 그가 한 동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동작을 임자를 빌려서 풀이하는 말이다. 이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았다’에서 ‘그’는 상태의 임자이고, ‘맞았다’는 임자의 상태를 풀어내는 말이다. 그런데 영국말은 주어를 오로지 동작으로 풀어주도록 되어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영국말의 ‘verb’를 동사(動詞)라고 번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임자의 동작을 풀어내는 경우에는 한국말 문장인 ‘그는 사과를 먹었다’와 영국말 문장인 ‘He eats an apple’이 비슷한 꼴을 갖지만, 임자를 상태로써 풀어내는 경우에는 한국말 문장인 ‘그는 매를 맞았다’가 영국말에서는 수동태인 ‘He was beaten’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 ‘He’는 동작을 뜻하는 ‘beat’의 임자가 아니라 상태를 뜻하는 ‘was beaten’의 임자이다.

여섯째, 한국인은 어떤 것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드러낼 수 있는 풀이토를 많이 갖고 있다. 예컨대 ‘답다, 룩다, 겹다, 립다, 럽다, 슥다’ 등에 바탕을 둔 ‘이름답다, 괴롭다, 정겹다, 부드럽다, 마렵다, 줌스럽다’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인은 이러한 것을 갖고서 상태에 대한 느낌을 매우 촘촘하게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가져온 낱말들을 한국말로 담아내는 구실을 한다. 한국인은 이(利), 정(情), 흥(興), 성(聖), 창피(猖披)와 같이 밖에서 가져온 낱말에 ‘롭다, 겹다, 슥다’와 같은 풀이토를 엮어서 ‘이(利)롭다, 정(情)답다, 정(情)겹다, 흥(興)겹다, 성(聖)스럽다, 창피(猖披)스럽다’와 같은 마디말을 만든다. 한국인이 ‘정(情)’을 ‘들이고(정을 들이다)’, ‘느끼고(정을 느끼다)’, ‘주는(정을 주다)’ 따위로 말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답다’, ‘정겹다’로까지 나아가 미운 정과 고운 정을 말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한국인이 쓰는 정(情)과 중국인이 쓰는 정(情)은 글자는 같지만 뜻에서 큰 차이를 갖게 된다.

일곱째, 한국인은 마음의 상태를 몸의 증상으로 나타내는 말을 매우 많

이 갖고 있다. 예컨대 한국인은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를 두고서 ‘속이 아프다’, ‘속이 쓰리다’, ‘속이 상하다’, ‘속이 썩다’, ‘속이 답답하다’, ‘속이 갑갑하다’, ‘속이 치미다’, ‘속이 치밀어 오르다’, ‘속이 북받치다’, ‘속이 북받쳐 오르다’, ‘속이 끓다’, ‘속이 부글부글 끓다’, ‘속이 타다’, ‘속이 바짝바짝 타다’, ‘속이 터지다’, ‘속이 끓다’, ‘속이 끓아 터지다’, ‘속이 뒤집히다’ 등으로 말한다. 또한 한국인은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 마음이 편안해지면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게 뚫리다’, ‘속이 후련하다’, ‘속이 씻은 듯이 후련하다’, ‘속이 개운하다’ 등으로 말한다. 이때 속은 애, 간, 가슴, 부화, 배알, 복장과 같은 오장육부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서 몸으로 마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처럼 한국인은 마음의 상태를 몸의 증상으로 나타내는 말들을 매우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몸은 언제나 하나의 ‘나’로서 함께한다. 따라서 한국인은 속과 겉을 달리하여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상황을 매우 어려워한다. 한국인은 솔직하고 화끈한 것을 좋아한다.

여덟째, 한국인은 어떤 것이 못마땅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꾸짖거나 나무리는 말을 매우 많이 갖고 있다. 예컨대 한국인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나 몸을 다치는 경우에 ‘개새끼(자식), 개 같은 자식(놈, 년), 썩새끼, 썩할 새끼(놈, 년), 좃 같은 새끼(놈, 년), 더러운 새끼(놈, 년), 호로새끼(자식), 죽일 놈(년), 돼질 놈(년), 지랄 같은 새끼(놈, 년), 망할 새끼(놈, 년), 상놈(년), 상놈의 새끼, 욕시할 놈(년), 나쁜 새끼(놈, 년)’와 같은 갖가지 욕설을 하거나 퍼붓는다. 이 밖에도 한국인은 좋지 않은 상황을 뜻하는 ‘죽는 것’, ‘망하는 것’과 같은 일 또는 하찮은 것을 뜻하는 ‘별레’, ‘개’, ‘돼지’와 같은 것을 끌어들이어 갖가지 욕설을 만들고 쓴다. 이처럼 욕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에 대한 긴장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떤 욕이 날아들어 쪽팔리는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홉째, 한국인은 어떤 것에서 느끼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을 매우 많

이 갖고 있다. 예컨대 한국인은 ‘아, 아아, 아이고, 앓, 악, 아차, 야, 앓, 어, 어어, 어이구, 엇, 억, 어라, 예, 예라, 예끼, 어랏차차, 예랏차차, 이랏차차, 으랏차차’와 같은 말로써 어떤 것에 대한 놀라움을 갖가지로 말한다. 또한 한국인은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낱말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어떤 것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아자’와 같은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새롭게 선보인 것이고, ‘따봉’과 같은 외래말은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새롭게 퍼져나간 것이다. 이처럼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한국인은 느낌을 매우 촘촘하게, 그리고 떠들썩하게 드러낸다.

열째, 한국인은 씨와 토를 엮어서 개념의 갈래를 매우 섬세하고 가지런하게 갈라서 말한다. 예컨대 한국인은 이름씨와 풀이씨에 ‘대로’라는 토를 붙여서 ‘맛대로(맛대로 함), 멋대로(멋대로 함), 마음대로(마음대로 함), 제대로(제대로 함), 하는 대로, 가는 대로’와 같은 개념을 술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름씨와 풀이씨에 ‘만큼’이라는 토를 붙여서 ‘이만큼(이만큼 함), 저만큼(저만큼 함), 그만큼(그만큼 함), 나만큼(나만큼 함), 너만큼(너만큼 함), 이것만큼(이것만큼 함), 저것만큼(저것만큼 함), 하는 만큼, 가는 만큼’과 같은 개념을 술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은 풀이씨 ‘가~’와 ‘ㄱ~’를 바탕으로 ‘가다(去), 가르다(分), 가리다(擇), 가리키다(指), 가르치다(教)’와 같은 개념을 매우 촘촘하게 엮어나갈 수 있고, 또한 ‘싶다’를 바탕으로 ‘하고 싶음’과 ‘되고 싶음’과 ‘답고 싶음’과 같은 개념을 촘촘하게 엮어나갈 수 있다.

열한째, 한국인은 임자의 지위에 따라 말을 높이고 낮추는 일을 매우 가지런하게 한다. 예컨대 한국말에서 볼 수 있는 높낮이말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인은 같은 사태를 두고서도 임자의 높낮이에 따라서 ‘저는 김 선생님께 진지를 차려 드렸습니다’, ‘나는 김 선생님께 진지를 차려 드렸습니다’, ‘저는 김 선생에게 밥을 차려 드렸습니다’, ‘나는 김 선생에게 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나는 김 선생에게 밥을 차려 주었다’ 등으로 말투를 달리해서 말한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높낮이말을 배우고 쓰게 되면, 자

연히 바람직한 임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강하게 갖게 된다.

이처럼 한국인은 한국말로써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다. 한국인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남들이 하기 어렵거나 하지 못하는 생각을 쉽게 해낼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인이 여러 부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뛰어난 슬기와 재주는 한국말이 가진 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인이 한국말로써 생각할 때, 어떤 힘을 낼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한국말은 사람들이 나날이 살아가는 일에서는 물론이고, 학문적으로 묻고 따지고 밝히는 일에서도 뛰어난 힘을 낸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한국말은 개념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학문적으로 살려 쓰기에는 모자란다고 말한다. 바깥에서 개념이나 이론을 가져다가 쓰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한국말의 바탕을 알지 못하는 말이다. 이들은 남의 것을 빌려서 개념을 거칠게 다루기 때문에 대충 써오던 외래 낱말을 그냥 편하게 여길 뿐이다. 이들은 애정(愛情)보다 사랑, 학습(學習)보다 배움, 교육(教育)보다 가르침, 정치(政治)보다 다스림, 미(美)보다 아름다움이 한층 맛깔스런 개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온 것을 받들면서 제 겨레가 가꾸어온 것을 업신여기는 잘못에 빠져 있다.

4. 문화재와 이름

우리는 앞선 이들이 이루어 놓은 옛것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문화를 새롭게 꾸미고, 다듬고, 차리고, 고치고, 가꾸고,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쓴다. 이 때문에 옛것이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잘 배우고 익히면, 문화를 새롭게 가꾸고 쓸 수 있는 힘을 크게 키워나갈 수 있다. 반면에 옛것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잘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힘을 키우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겨레가 더욱 알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것을 배우고 익

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옛것 가운데서 특별히 지키고 보살필 필요가 있는 것을 문화재라고 일컫는다. 나라에서는 중요한 문화재를 별도로 지정하여 특별하게 지키고 보살핀다. 이런 것을 흔히 국가지정문화재라고 말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따위가 있다. 이들 가운데 으뜸인 것이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보나 보물로 불리는 것들이다.

사람들은 문화재를 잘 지키고 보살피기 위해서 낱알의 문화재에 이름을 붙이고 목록을 만든다. 어떤 것은 본디부터 이름을 갖고 있어서 그대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새롭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한다. 예컨대 안동의 <도산서당>이나 남원의 <광한루>와 같은 것은 본디부터 이름을 갖고 있어서 그대로 부르는 것이고,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이나 <백자대호>와 같은 것은 새롭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백자대호>의 경우에는 같은 것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국보 제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靑磁象嵌雲鶴文梅瓶)>, <국보 262호 백자대호(白磁大壺)>와 같이 지정 번호와 물건 이름을 함께 묶어서 불러야, 특정한 문화재만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구실할 수 있다.

문화재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을 붙이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의 특성을 잘 담아내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보나 보물에 붙여 있는 이름을 보게 되면, 이런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국보 제74호 청자압형수적(靑磁鴨形水滴)>이나 <국보 제94호 청자소문과형병(靑磁素文瓜形瓶)>처럼 한문에 익숙한 사람조차 뜻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름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민들이 가까이서 아끼고 배워야 할 문화재가 <청자압형수적>이나

〈청자소문과형병〉처럼 뜻을 알기 어려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학자들이 일상의 한국말을 버려두고, 어려운 한자를 가져다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오리 모양을 압형(鴨形)으로, 연적을 수적(水滴)으로, 민무늬를 소문(素文)으로, 참외 모양을 과형(瓜形)으로 옮겨서 이름을 붙이니, 뜻을 알기 어렵다. 이들은 알아보기 쉽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구미에 맞도록 하였다. 〈청자압형수적〉은 〈청자오리모양연적〉으로, 〈청자소문과형병〉은 〈청자민무늬참외모양병〉으로 해야 뜻이 밝아진다.

학자들이 한자를 가져다가 뜻을 알기 어려운 이름을 붙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보다 더한 것은 한자를 가져다가 이름을 잘못 붙여 놓은 것이다. 예컨대 〈국보 제219호 청화백자매죽문호(靑華白磁梅竹文壺)〉, 〈국보 제262호 백자대호(白磁大壺)〉로 일컫는 호(壺)는 호(壺)로 불러서는 안 되고, 관(罐)으로 불러야 맞다.(끝에 실려 있는 그림〈1〉과 그림〈2〉 참조.) 왜냐하면 중국인이 호(壺)라고 부르는 것은 술이나 물과 같은 것을 담는 그릇으로서, 병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말한다. 호(壺)가 처음에는 주둥이로 붓고 주둥이로 따르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한 쪽에 부리를 만들고 다른 쪽에 손잡이를 만들어 위쪽의 주둥이로 붓고 옆쪽의 부리로 따르는 모양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한국의 학자들이 호(壺)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단지를, 중국인은 관(罐)으로 부른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오늘날과 달리 단지를 호(壺)라고 하지 않고, 관(罐)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훈몽자회’에는 단지를 ‘단디 관(罐)’으로 새기고 있다. 또한 ‘번역박통사’에서도 金罐을 금단디라고 새기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은 옛 사람들이 단지처럼 생긴 것을 어떻게 불렀는지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일본인을 따라서 호(壺)라고 부르고 있다.

훈몽자회에는 호(壺)를 ‘호병 호(壺)’라고 새기면서, ‘큰 것을 병(大日瓶)’, ‘작은 것을 호(小日壺)’라고 풀이하고 있다. 호(壺)는 글자의 모양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주둥이가 조금 튀어나온 작은 병(瓶)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인이 흔히 호리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호(壺)에 가까운 모양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학자들은 일본인이 부르는 방식을 따르다보니, 중국인이 호(壺)라고 말하는 것을 호(壺)라고 하지 않고, 병(瓶) 또는 주자(注子)라고 하게 되었다. 예컨대 <국보 제281호 백자주자(白磁注子)>와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끝에 실려 있는 그림<3> 참조.)

오늘날 한국인이 단지나 항아리에 호(壺)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사과인 애플(apple)에 배를 뜻하는 페어(pear)라는 이름을 붙인 것과 같다. 그런데 <청화백자매죽문호(靑華白磁梅竹文壺)>나 <백자대호(白磁大壺)>처럼 국보나 보물에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이름을 붙여 놓았으니, 호(壺)와 관(罐)과 담(甕)의 내력을 조금이라도 살펴본 사람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조상에게 부끄러운 것은 물론이고 나라 바깥으로까지 웃음을 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도자기 유물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들조차 아직 이런 사실에 감감하다.

한국인은 단지나 항아리에 굳이 호(壺), 관(罐), 담(甕)과 같은 한자 이름을 붙여서 부를 필요가 없다. 호, 관, 담은 아직 국어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은 매우 낮은 낱말로써,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매우 적다. 이런 까닭에 <국보 제262호 백자대호>를 설명하는 글에는 백자대호를 백자달항아리로 바꾸어서 풀이하고 있다. 대호(大壺)를 달항아리로 부르므로써, 누구나 쉽게 이름의 뜻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壺)와 항(缸)과 항아리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대호를 달항아리로 부르면서도, 중호와 소호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다. 어떤 것에 대호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마땅히 중호와 소호가 어떤 것인지도 말해주어야 한다. 이러니 백자대호는 그냥 '백자 큰 단지' 또는 '백자 항아리'로 불러야 한다. 한자로 번역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자를 쓰면 된다.

나라에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분야마다 들쭉날쭉하고 있다. 예컨대 상고시대 석기 유물은 뿔석기, 간석기, 주먹도끼, 찌개, 굽개, 뿔개, 돌칼, 빗살무늬토기, 민무늬 토기와 같이 알기 쉬운 이름이 붙어 있는 반면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도자기 유물은 청자매병, 상감청자호, 분청박지문호, 백자편병과 같이 알기 어려운 이름이 붙어 있다. 석기 유물이 알기 쉬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이들이 어려운 한자 낱말을 알기 쉬운 일상 말로 바꾸는 일에 앞장을 서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도자기 유물이 어려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이들이 일본인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했기 때문이다.

5. 도자 그릇의 갈래와 이름

그릇은 사람이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한국인은 그릇을 재료에 따라서 나무 그릇, 질 그릇, 쇠 그릇, 짚 그릇, 대 그릇, 종이 그릇 따위로 나누기도 하고, 쓰임새에 따라서 바리, 종지, 종발, 보시기, 접시, 대접, 소래기, 훈주, 쟁반, 병, 단지, 동이, 향아리, 두레박, 장군, 함지, 체, 조리, 바구니, 둥구미, 삼태기, 망태, 덕석 따위로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인은 살림에 쓰이는 그릇의 이름을 잘 모른다. 몇 십 년 전만 하여도 누구나 알고 있던 종지, 훈주, 함지, 체, 조리, 이남박, 둥구미, 삼태기, 망태, 덕석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살림살이가 달라지면서 그것들을 잘 쓰지도 보지도 않게 되자, 그것과 더불어 생활하던 사람들조차 이름을 잘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직도 나날이 쓰고 있는 그릇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른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흔히 마주하는 사발과 대접, 사발과 주발, 대접과 쟁반, 종지와 보시기, 단지와 향아리,

항아리와 독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잘 모른다면 문제이다.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이 그릇의 이름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이다.

한국인은 아직 그릇의 갈래와 이름을 제대로 묻고 따지지 않고 있다. 사전이나 교과서를 찾아보아도 그릇의 갈래와 이름을 대충 풀어놓았을 뿐이다. 재료, 쓰임, 내력 따위를 꼼꼼히 따져서 그릇의 갈래와 이름을 체계적으로 갈무리해놓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니 사람들이 그릇의 갈래와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보나 보물과 같은 유물에 이름을 붙이는 일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인은 흙으로 모양을 짓고 말려서, 가마에 구워서 만든 것을 도자기라고 부른다. 도자기는 도기(陶器)와 자기(磁器)를 아우른 것으로서, 모양과 무늬를 만드는데 쓰인 흙과 유약, 불에 굽는 방법과 온도 등에 따라서 크게 토기(土器), 도기(陶器), 석기(炆器), 자기(磁器)로 나뉜다.

한국인은 도자기를 주로 그릇으로 만들어 써온 까닭에 도자기와 도자 그릇을 같게 여기는 일이 많다. 그런데 한국인이 도자기로써 오로지 그릇만 만들어 쓴 것이 아니라 기와, 전돌, 떡살, 고드레, 지석처럼 그릇이 아닌 것들도 만들어 썼기 때문에 도자기와 도자 그릇을 꼭 같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자 낱말에서는 기(器)가 여러 가지 것을 두루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반면에 한국인이 '그릇 器(기)'로 새기는 그릇은 주로 어떤 것을 담는 기구를 가리킨다.

한국인은 만드는 재질에 따라 도자기를 질, 옹기, 토기, 도기, 사기, 자기 등으로 불러왔고, 도자기로써 만든 그릇을 사발, 접시, 종지, 보시기, 단지, 항아리, 독과 같은 것들로 불러왔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은 한국말에 바탕을 두고 붙여진 것이고, 어떤 것은 한자말에 바탕을 두고 붙여진 것이다.

그런데 근대로 접어들어 한국의 학자들이 도자 그릇을 학문적으로 연

구하고 정리하면서, 일본인이 해놓은 것을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을 한자 낱말을 써서 이름을 붙였다. 이들은 한국인이 예부터 써온 말을 가볍게 여겨서 질, 독, 사기, 보시기, 단지, 항아리, 소래기와 같은 이름에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한국인이 낱말이 쓰는 말과 학문적으로 정리된 말이 달라지면서, 도자 그릇의 갈래와 이름이 낯설어지고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고, 서로 헷갈리기까지 하였다.

오늘날 한국인은 도자기를 재질에 따라 질, 도, 도기, 독, 옹, 옹기, 사기, 석기, 자기 따위로 부른다. 이때 질은 도(陶) 또는 도기(陶器), 독은 옹(甕) 또는 옹기(甕器), 사기(沙器 또는 砂器)는 자기(磁器) 또는 자기(瓷器)의 뜻으로 쓰이는 일이 많다. 그런데 사기는 한자 낱말이면서도, 한국인이 자기(瓷器,磁器)를 일컫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쓴 낱말인데, 고운 돌가루를 써서 만든 도자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발은 자기로 된 발, 사소라는 자기로 된 소라, 사옹원은 나라에서 자기와 옹기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그런데 조선 후기부터 도기나 자기를 가리지 않고 모두 사기로 일컫는 일이 널리 퍼져서, 옹기점을 자기점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한편 석기(炆器)는 돌처럼 단단하게 구운 도자기라는 뜻으로, 도자기의 종류를 전문적으로 나눌 때 쓰는 말로서, 옹기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은 도자기로 만들어진 그릇을 쓰임새에 따라서 바리, 종지, 종발, 보시기, 접시, 대접, 반, 쟁반, 병, 단지, 동이, 항아리, 독, 소래기, 훈주, 두레박, 장군 따위로 불러왔다. 그런데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뜻하는지 갈래를 지어서 말하기 쉽지 않다. 한국말과 한자말이 뒤섞인 가운데 시대나 지역에 따라 말이 조금씩 달리 쓰이는 까닭에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이들이 어떠한 모양새와 쓰임새를 갖고 있으며, 어떤 이름으로 불러왔는지 그 내력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 : 발은 한자 낱말인 발(鉢)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승려들이 밥을 담아먹는 그릇을 일컫다가 점차 일반인들이 쓰는 그릇까지 일컫게 되었

다. 발이 홀로 쓰일 때에는 바리, 바루, 바리대, 바리때, 발우, 발우대 등으로 쓰이고, 다른 말과 함께 쓰일 때에는 사발, 주발, 막사발처럼 그냥 발로 쓰인다. 발은 주로 나무, 쇠붙이, 도자기로 만든다. 발을 바리로 쓰는 경우에 사전에 따르면 그 뜻이 '1. 낫쇠로 만든 여자의 밥그릇. 오목주발과 같으나 아가리가 조금 좁고 중배가 나왔으며 뚜껑에 꼭지가 있다. 2. <옛 유물> 바닥에서 아가리 쪽으로 벌어져 올라가 아가리의 지름이 20cm 이상인 토기. 보통 높이가 아가리 지름보다 짧으며, 음식 그릇으로 쓴다.'로 나와 있다.

사발 : 사발은 한자 낱말인 사발(沙鉢)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사기로 만들어진 발을 말한다. 사발은 밥, 국, 술 등을 담는 그릇으로서, 위는 넓고 아래는 좁으며 굽이 달려 있다. 사발의 생김새는 한국인이 숟가락으로 써 밥이나 국을 떠먹는 것에 알맞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주로 젓가락만을 사용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사발과 같은 모양을 그릇을 보기 어렵다.

주발 : 주발은 한자 낱말인 주발(周鉢, 銅鉢)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낫쇠로 만들어진 발을 말한다. 주발은 주로 밥을 담는 그릇으로서, 위가 약간 벌어지고 뚜껑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주발을 밥주발이라고 말한다.

합 : 합은 한자 낱말인 합(盒)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음식을 담아두는 그릇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합을 합자(盒子)라고도 한다. 합은 그리 높지 않고 둥글넓적하며 반드시 뚜껑이 있다. 합은 나무, 쇠붙이, 도자기 따위로 만든다. 합에는 큰 합, 작은 합, 중합, 알합 따위가 있다.

종지 : 종지는 한자 낱말인 '종즈(鍾子)'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종즈'가 '종지'로 바뀌었다. 종지는 간장, 고추장 따위를 담아서 상에 올려놓는 매우 작은 그릇이다. 한자로 소완(小盥)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중발 : 중발은 한자 낱말인 중발(鐘鉢)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종지보다는 조금 넓고 평평한 그릇으로 중발(中鉢)보다 작다. 중발을 종제기, 종그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보시기를 중발로(경북 지

방), 종지를 중발로(경북과 충청 지방) 일컫기도 한다.

중발 : 중발은 한자 낱말인 중발(中鉢)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조그마한 주발을 일컫는다. 중발은 중발보다 크고 주발보다 작은 것을 말한다.

보시기 : 보시기는 '보오'에 바탕을 둔 낱말로서, 한자로 보아(浦兒)라고도 적었다. 나물, 김치, 깍두기 따위를 담은 반찬 그릇의 하나이다. 모양은 사발 같으나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다. 조선시대에 한자 낱말인 구자(甌子), 구아(甌兒), 잔(盞), 완(椀 碗)을 보시기로 새긴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보시기가 종지(:鍾子)나 종발(鐘鉢)과 같은 작은 그릇을 두루 일컫는 이름으로 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접시 : 접시는 '덥시'에 바탕을 둔 낱말로서 '덥시'가 '접시'로, '접시'가 '접시'로 바뀌었다. 접시는 포개거나 쌓는 뜻을 지닌 '덥다'에 뿌리를 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접시를 한자로 접자(楪子)라고도 적었다. 높이가 낮고 납작하게 퍼진 것으로서 뚜껑이 없는 그릇으로, 반찬이나 과일, 떡 따위를 담는 데 쓴다.

대접 : 대접은 큰 접시라는 뜻으로, 위가 넓적하게 퍼지고 높이가 낮으며 뚜껑이 없는 그릇이다. 대접은 국, 물, 술 따위를 담는 데 쓴다. 대접을 한자로 대접(大楪)이라고도 적었다.

쟁반 : 쟁반은 한자 낱말인 쟁반(鐙盤)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높이가 낮고 동글납작하거나 네모난, 넓고 큰 그릇으로서 보통 다른 그릇을 받쳐 드는데 쓴다. 쟁반에는 나무로 만든 것, 쇠로 만든 것, 사기로 만든 것 등이 있다.

잔 : 잔은 한자 낱말인 잔(盞)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술이나 차 따위를 부어서 따라 마시는 데 쓰는 작은 그릇을 말한다. 잔에는 옆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 밑에 높은 굽이 있는 것, 잔과 받침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다. 조선시대에 잔을 보아라고 새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보아(보시기)라는 낱말을 쓰다가, 잔이라는 낱말을 받아들이면서 잔과 보아가 점차 나뉜 것으로 볼 수 있다. 잔(盞)은 물론이고 배(杯), 상(觴) 따

위를 모두 잔으로 일컫는다.

잔대 : 잔대는 한자 낱말 잔대(盞臺)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잔을 받치는 데 쓰는 그릇을 말한다. 잔대에는 굽이 낮은 것과 굽이 높은 것이 있다. 잔대를 한자로 탁반(托盤)이라고도 일컫는다.

병 : 병은 한자 낱말인 병(瓶)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주로 술, 물, 초 따위를 담는 데 쓰는 그릇으로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좁다. 병에는 마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병은 주로 도자기나 쇠붙이로써 만든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유리로 만들어서 물건을 담는 것을 거의 모두 병이라고 부른다.

단지 : 단지는 '단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 낱말로서, 어떤 것을 담아서 두거나 삭히거나 끓이는 것과 같은 일에 쓰는 그릇을 일컫는 말이다. 단지는 목이 짧고 배가 부른 그릇으로 독보다 작은 것을 말한다. 단지를 만드는 재료로는 도자기, 쇠붙이, 나무, 종이 따위가 있다. 훈몽자회에서 관(罐)을 '단디 관'으로 새기고 있는 것에서 단지가 관(罐)과 짝을 이룸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말에서 단지는 관(罐)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가지 뜻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단지에는 꿀단지, 간장단지, 김치단지, 술단지, 요강단지, 조상단지, 신주단지, 애물단지, 고물단지 따위가 있다. 술단지는 술을 단지처럼 일컫는 말이고 조상단지와 신주단지는 조상과 신주에게 올리는 물건을 담아두는 단지를 말하고, 애물단지와 고물단지는 아끼는 물건이나 오래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런데 항(缸)에서 항아리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단지 가운데서 큰 것을 항아리로 일컫는 일이 많아졌다. 오늘날 고고학에서는 보통 키가 30cm 이하인 항아리를 단지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키가 30cm 이상인 것을 단지라고 불러왔음을 볼 수 있다.(끝에 실려 있는 그림<4> 참조.)

동이 : 동이는 '동희'에 바탕을 둔 낱말로서, 주로 옹기으로써 만들어 물을 길는 데 쓰는 그릇이다. 동이는 바가지와 같은 것이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가리가 넓으며, 또한 쉽게 들거나 일 수 있도록 양옆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 동이는 한자에서 분(盆)이나 양(盎)으로 일컫는 것과 비슷하였다.

항 : 항은 한자 낱말인 항(缸) 뿌리를 둔 낱말로서, 밑보다 위가 넓은 그릇으로서 물, 술 따위를 부어놓는 그릇을 말한다. ‘한불자전(韓佛字典)’에 항을 ‘바탕이’라고 새겨놓은 것에서 항은 바탕이 넓은 그릇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항과 아리를 합친 항아리라는 낱말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항을 항아리나 독의 뜻으로도 쓰게 되었고, 그 결과 삼신항(三神缸), 제석항(帝釋缸), 터주항과 같은 낱말이 쓰이게 되었다.

항아리 : 항아리는 한자 낱말인 항(缸)과 아리가 합쳐진 낱말이다. 항아리는 항을 위아래가 좁고 배가 볼록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아리(알)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항아리는 단지보다 크고 독보다 작은 것으로서 단지와 독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훈몽자회’에서 담(甔)을 ‘항아리 담’으로 새기고 있는 것에서, 그 당시에는 항아리가 아직 특수한 형태의 그릇에 머물러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초기에는 오로지 질로써 항아리를 만들었으나,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로 항아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사기 항아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두 개의 항을 위아래로 붙여서 하나의 항아리를 만드는 기술을 갖게 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흔히 ‘달항아리’라고 부른다. 항아리가 많이 쓰이게 되면서, 이전에 단지로 부르던 것을 항아리로 부르는 일이 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지를 작은 항아리라는 뜻으로 소항(小缸)으로 일컫는 일이 생겨났다.

독 : 독은 물, 술, 장, 김치, 곡식 따위를 담아 두는 데에 쓰는 큰 그릇을 일컫는다. 키가 크고 배가 조금 부르며, 전이 달려 있다. 독은 주로 질 또는 오지로 만든다. 독은 한자로 웅(瓮, 甕)으로 일컫는 것과 같거나 비슷하다.

주자 : 주자는 한자 낱말인 주자(注子)에 바탕을 둔 낱말로서, 술이나

물 따위를 떠서 잔에 붓는 그릇을 일컫는다. 주자는 쇠붙이, 나무, 도자기 따위로 만든다.

국자 : 국자는 물에 여러 가지 음식을 넣고 끓인 국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국, 술, 물과 같은 것을 뜨는 데 쓰는 그릇을 말한다. 국자는 옴폭 들어간 바닥에 긴 자루가 달렸다. 국자를 한자로 극비(棘匕)라고도 일컫는다. 국자는 나무, 쇠붙이, 도자기로 만든다.

두레 : 두레는 ‘드레’에 바탕을 두고 있는 낱말로써 드레가 두레로 바뀌었다. 두레는 물을 길는 그릇으로서 나무, 쇠붙이, 도자기로써 만든다. 한자 낱말인 쉼자(洒子), 쉼자(灑子)를 두레로 새겨 왔다.

주전자 : 주전자는 한자 낱말인 주전자(酒煎子)에 바탕을 둔 낱말로서, 물이나 술과 같은 것을 데우거나 담아서 따르게 만든 그릇을 일컫는다. 주전자는 부리와 손잡이가 달려 있다. 주전자는 주로 쇠붙이나 도자기로 만든다. 한자 낱말인 쉼자(洒子), 주자(注子), 다호자(茶壺子)를 주전자로 새긴 것을 볼 수 있다.

화로 : 화로는 한자 낱말인 화로(火爐)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을 일컫는다. 화로는 불씨를 살려두거나 어떤 것을 덥히거나 달구거나,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데 쓴다. 화로는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돌, 도자기, 쇠붙이 따위로 만든다.

술 : 밥을 짓거나 국 따위를 끓이거나 삶는 그릇으로서, 아래쪽에 세 개의 발이 붙어 있어서 불을 때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술은 쇠붙이, 도자기, 돌 따위로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술을 술단지라고 일컫기도 한다. 술은 한자로 ‘鼎, 鍋兒, 鑊’으로 일컫는 것과 같거나 비슷하다.

가마술 : 밥을 짓거나 국 따위를 끓이거나 삶는 그릇으로서, 발이 달려 있지 않아서 가마에 걸어 놓고 쓰는 술을 말한다. 사람들은 가마술을 그냥 가마라고도 말한다. 가마는 한자로 ‘鑊, 釜’로 일컫는 것과 같거나 비슷하다.

탕관 : 탕관은 한자 낱말인 탕관(湯罐)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국을 끓

이거나 악을 달이는 자그마한 그릇을 말한다. 탕관은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쇠붙이, 도자기, 돌 따위로 만들며 흔히 옆에 손잡이가 달려 있다.

시루 : 시루는 '시르'에 바탕을 두고 있는 낱말로서, 시르가 시루로 바뀌었다. 시루는 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 데 쓰는 둥근 그릇으로, 모양이 자배기 같고 바닥에 김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다. 시루는 주로 질이나 오지로 만든다. 한자 낱말인 증(甑)을 '시루 증'으로 새겨왔다.

대야 : 대야는 '다야'에 바탕을 두고 있는 낱말로서, 다야가 대야로 바뀌었다. 대야는 물을 담아서 얼굴이나 손발 따위를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을 일컫는다. 대야는 쇠붙이나 도자기로 만든다. 한자 낱말인 치(卮), 선(鑓), 우(盃), 우자(孟子) 따위를 대야로 새겨왔다.

요강 : 요강은 방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으로서, 쇠붙이나 도자기로 써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요강을 요강단지라고 일컫기도 한다. 요강을 한자로 낙강(溺綱), 낙항(溺缸), 낙강(溺江)으로 적기도 한다.

소래기 : 소래기는 '소라'에 바탕을 둔 낱말로서, 소라가 소래, 소래기, 소라기로 바뀌었다. 소래기는 둘레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그릇을 일컫는다. 소래기는 독의 뚜껑이나 다른 것을 담는 그릇으로 많이 쓰인다. 소래기는 한자 낱말인 쏨과 비슷하다.

푼주 : 푼주는 한자 낱말인 푼자(盆子)에 바탕을 둔 낱말로서, 푼자가 푼주로 바뀌었다. 푼주는 둘레가 조금 높고 밑이 좁으면서 넓적하게 생긴 그릇으로, 소래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한자 낱말인 자분(磁盆)을 사소라라고 새기기도 하고, 사푼자라고 새기기도 하는 것에서 소래기와 푼주가 같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장군 : 장군은 장구에 바탕을 둔 낱말로서, 장구가 장군으로 바뀌었다. 장군은 부(缶)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부(缶)를 '장구 부' 또는 '장고 부'로 새겼다. 장군은 물, 술, 간장 따위를 담아서 옮길 때에 쓰는 그릇으로, 도자기로써 만들기도 하고 나뭇조각으로 통을 메우듯이 짜서 만들기도

한다. 중두리를 뒀어 놓은 모양으로 한쪽 마구리는 편평하고 다른 한쪽 마구리는 둥그스름하며 작은 아가리가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장군을 한자로 장분(長盆)이라고 적기도 하였다. 장군에 해당하는 한자 낱말은 횡부(橫缶)이다.

공기 : 공기는 한자 낱말이 공기(空器)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그릇을 일컫는다. 이러한 공기를 오늘날에는 위가 넓게 벌어지고 밑이 좁은 작은 그릇으로서 주로 밥을 담아 먹는 데에 쓰는 것을 일컫는다. 옛날에는 밥그릇이 매우 커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공기처럼 생긴 것을 밥그릇으로 쓰지 않았다. 밥을 먹는 양이 점차 줄어들면서 보시기와 같은 것으로 밥을 먹게 되었고, 그것을 따로 공기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배 : 배는 한자 낱말인 배(杯)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한국말에서는 홀로 쓰이지 않고, 건배, 축배, 기념배처럼 다른 낱말의 일부로서 쓰이거나 술이나 물을 담은 잔을 세는 단위로써 쓰인다.

완 : 완은 한자 낱말인 완(碗, 椀)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한국말에서는 홀로 쓰이지 않고, 다완(茶碗), 자완(磁碗)처럼 특수한 그릇을 일컫는 경우에만 쓰인다. 이 때문에 완은 아직 한국말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완은 중국인이 밥이나 국을 담는 데 쓰는 그릇으로, 사발이나 대접과 비슷하다.

호 : 호는 한자 낱말인 호(壺)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한국말에서는 홀로 쓰이지 않고, 호병처럼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쓰였다. 이 때문에 호는 아직 한국말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호는 술이나 물을 담아서 따르는 그릇을 말하는데, 훈몽자회에는 호를 ‘호병 호’라고 새기면서 “큰 것을 병으로 말하고(大曰瓶), 작은 것을 호로 말한다(小曰壺).”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학자들이 일본인을 따라서 도자 그릇을 연구하는 과정에 호를 단지나 항아리로 새김으로써 도자 유물에 골호(骨壺), 청자호(靑磁壺), 백자호(白磁壺)와 같은 이름이 붙게 되었다.

준 : 준은 한자 낱말인 준(罇, 樽, 尊)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한국말에서는 홀로 쓰이지 않고, 제사 때에 술이나 물을 담는 그릇인 희준(犧尊), 상준(象尊), 저준(箸尊), 호준(壺尊), 대준(大尊) 따위로 쓰였다. 준은 쇠붙이나 도자기로 만든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준을 충으로 잘못 알아서, 준을 충 또는 충항아리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용이 그려져 있는 준을 용준(龍樽)으로 부르지 않고, 용충으로 부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끝에 실려 있는 그림〈5〉 참조.)

6. 글을 끝내며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이곳에서 만들고 쓴 토기, 옹기, 청자, 백자와 같은 도자 그릇을 수집·연구·전시·거래하는 사람들이 일본인이 하는 것을 따라서 호(壺), 완(碗), 미시마, 이라보, 고비끼, 하카메, 긴카이, 고다이, 호리다시, 지다이, 아다라시와 같은 말을 예사롭게 쓰는 것이 놀랍고 안타까워서였다.

한국인에 앞서서 일본인이 한국의 도자 그릇을 많이 다루어온 까닭에 자연히 일본인의 입김이 세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본인이 단지나 항아리를 호(壺)라고 부른다고, 한국인 또한 그렇게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한자 낱말을 써서 이름을 붙이려면 제대로라도 붙여야 하는데, 병(瓶)의 한 가지인 호(壺)를 단지나 항아리를 일컫는 이름으로 삼으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보나 보물에도 이런 이름을 붙여놓았으니,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인이 도자 그릇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옛 사람들이 도자 그릇을 어떻게 일컬어 왔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새롭게 이름을 붙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맞은 잣대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도자 그릇이 만들어진 시대, 도자 그릇을 만든 재질과 방법에 따른 종류, 도자 그릇을 만든 주체와 지역, 도자 그릇

에 그려진 무늬와 기법, 도자 그릇이 갖고 있는 나름의 특징, 도자 그릇의 쓰임새에 따른 갈래 따위를 꼼꼼히 살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본디의 뜻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도록 갈래를 짓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옛것을 제대로 지키고 보살필 수 있다. 예컨대 <그림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조선 말기+청화+백자+분원가마+모란무늬+작은 단지> 또는 <19세기+청화+백자+분원가마+모란무늬+작은 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것이다.(끝에 실려 있는 그림<6> 참조.) 이러한 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문화재마다 알기 쉬운 이름을 가질 수 있을 때, 국민들이 옛것에 담겨 있는 슬기와 재주를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한국인이 말하는 호(壺)와 그 생김새



<국보 제219호 청화백자매죽문호
靑華白磁梅竹文壺>



<국보 제262호 백자대호(白磁大壺)>

그림<2> 중국인이 말하는 호(壺)와 그 생김새



그림<3>



<국보 제281호 白磁注子>

그림<4> 단지의 크기와 생김새



<사기점, 마산동, 조흔 단지라고 쓰인 단지>
(높이: 37cm, 위 지름: 20cm, 아래 지름: 14cm)

그림<5> 준(罇)



<용준(龍罇)>

그림<6>



<조선말기분원가마모란무늬작은단지>
(높이: 11cm, 위 지름: 8cm, 아래: 7cm)